

# IMF 금융위기와 광주권 경제공간의 변화

## The Financial Crisis of Korean Economy and the Changing Economic Space of Gwangju City

김재철\*

요약

오늘날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전전됨에 따라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IMF 금융위기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동시키면서 양적, 질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경제적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광주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업은 서비스업과 수송장비제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은 IMF 금융위기의 경제적 침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았고, 대신 고무·플라스틱·기계장비·전기전자 부문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공간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감소로 도심지역의 상업이 쇠락하고,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으로 인해 광산업 집적공간의 형성과 벤처기업이 입지한 창업보육센터나 벤처빌딩과 같은 미시산업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지방뿌리내림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요어 : 금융자본의 세계화, 금융위기, 집적공간, 미시산업공간, 지방뿌리내림, 지역혁신체제

### 1. 머리말

오늘날 금융자본의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자본의 지리적 이동이 더욱 자유롭고 빨라짐에 따라 범세계적 공간에서 자본의 이동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지적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의 머니게임에 의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훨씬 커지게 되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바로 이

러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변화는 금융자본 중심의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즉 특정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 국가와 경제적 관련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아 위기가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자본자유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금융시장과 연관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7년 말 물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아닥친 경제위기는 금융자본의 세계화과정에서 한국경제의 해외금융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데 반해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외국의 금융자본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외환위기인 동시에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그 동안 한국의 기업들이 문어발식 기업경영과 과잉투자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는 취약한 반면 시장경쟁력은 낮아 한국에 투자한 해외금융자본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 결과 국제신인도가 하락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은 더욱 경직되어 경쟁력이 낮은 많은 대기업들은 경영이 마비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에 의존적인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동시에 부실화되는 연쇄효과를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전체가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MF를 중심으로 세계금융자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이 같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금융시장이 요구하는 경제환경과 제도적 틀로의 변화를 기해야하며, 이는 곧 세계경제와의 고리가 더욱 견고해짐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장경제 중심의 개방적 경제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인수합병 되는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몇몇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입지하여 그와 전후방 산업연계로 이루어진 지방경제는 대기업이 쓰러지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방의 여러도시에서는 그 지역에 입지한 주력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 등이 전개되어 거시적인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모순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처럼 IMF 금융위기는 전 산업부문에서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높은 실업률을 야기하여 지역경제의 양적 변화를 일으킬 뿐

만 아니라 산업 및 기업구조 측면의 질적 변화도 일리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MF 금융위기가 광주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한 공간적 변화가 있는지를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광주경제는 인접한 전남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남의 경우 IMF 금융위기의 영향력에 의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고, 편의상 범위를 좁혀 광주지역만을 고려하였다.

연구방법은 IMF 금융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광주지역의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금융위기 이전 산업구조와 지역산업연관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 변화된 양적 측면을 산업별 입지계수나 지역총생산액의 변화와 노동시장 및 공장가동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대응양식과 공간경제의 변화 징후들을 검토하였다. 단지 기업경영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공간경제 변화는 개별기업을 미시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 2. 광주지역의 산업연계성과 산업구조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는 광주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실제조사를 통한 방법이 있으나 이는 비용과 시간상의 한계 때문에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광주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이는 입지상접근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투입계수표를 지역의 투입계수표로 수정하여 광주지역의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하는 방

법에는 가중치조정법(weighting method), 입지상접근법(location quotient approach), 수요·공급접근법(supply-demand pool approach), 양비례조정법(RAS method), 반복균형법근법(iterative balance approach) 및 지역구매계수법(local purchasing coefficient method) 등이 있다(이춘근, 1994; 김호연, 1999).

표 1. 광주지역 산업구조 및 입지상계수 (1995)

산업구분	전국(%)	광주(%)	입지상계수
농림수산물	0.040	0.015	0.379
광산물	0.002	0.000	0.181
음식료품	0.035	0.027	0.754
섬유 및 가죽제품	0.043	0.016	0.367
목재 및 종이제품	0.015	0.003	0.194
인쇄, 출판 및 복제	0.008	0.005	0.646
석유 및 석탄제품	0.020	0.000	0.000
화학제품	0.057	0.040	0.705
비금속광물제품	0.018	0.006	0.307
제1차금속	0.037	0.007	0.193
금속제품	0.020	0.011	0.528
일반기계	0.037	0.069	1.874
전기, 전자기기	0.076	0.034	0.445
정밀기기	0.005	0.001	0.138
수송장비	0.055	0.112	2.05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09	0.004	0.435
전력 가스 및 수도	0.019	0.008	0.412
건설	0.116	0.170	1.459
도·소매	0.085	0.109	1.282
음식점 및 숙박	0.037	0.043	1.173
운수 및 보관	0.041	0.044	1.074
통신 및 방송	0.012	0.015	1.213
금융 및 보험	0.040	0.047	1.18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59	0.071	0.902
공공행정 및 국방	0.018	0.022	1.217
교육 및 보건	0.051	0.078	1.529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21	0.020	0.959
기타	0.005	0.024	5.124

주: 입지상계수를 제외한 다른 수치는 산업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 총조사보고서.

입지상접근법에서 지역의 입지상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지역의 수출산업 혹은 기반산업이며, 1보다 작은 산업은 수입산업 혹은 지원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입·산출에서 볼 경우 수출산업은 지역내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산업이며, 수입산업은 타 지역에서 수입을 하는 산업이다. 수출산업의 경우는 원료와 중간재를 지역내에서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전국의 투입계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입산업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의 투입계수표를 지역의 입지상계수표로 수정하여 지역의 투입계수표를 구하는 것이다(김상호, 1995).

광주지역의 28개 업종의 입지상계수는 12개 서비스 산업부문중 전기·가스·수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사회 및 기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전국의 산업비중을 초과해 입지상계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가 전남의 중심 도시로서 주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대도시의 특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14개 제조업 중 수송장비와 일반기계업종의 입지상계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나고, 다른 모든 업종은 1보다 크게 낮은 계수를 나타내 제조업의 기반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송장비 제조업에서 2이상의 높은 계수를 나타낸 것은 아시아자동차의 입지로 인한 것이며, 또한 아시아자동차가 광주의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광주지역 입지상계수를 고려하여 광주지역 투입계수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계산한 광주지역 생산유발계수표를 사용하여 산업별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분석하였다. 영향력계수는 특정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전 산업에 미치는 효과, 즉 후방연관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의 정도를 나타내며,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발생했을 때

수요증가가 특정산업에 미치는 영향, 즉 전방연관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영향력계수가 수송장비제조업이 1.2 이상이며,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인쇄 및 출판, 화학제품,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제조업과 건설, 음식점 및 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1.0 이상으로 나타나 광주지역의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서 활발한 수요가 이루어질 때 광주 전체산업

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감응도계수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1, 화학제품 1.5, 금융 및 보험 1.4, 음식료품 1.2, 도·소매 1.2,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IMF 경제위기에 수요가 감소하면 이와 같은 업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계수는 노동투입량을 산출량으로 구한 값이며, 소득계수는 요소소득을 산출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한국은행 투입산출표의 산업항목 중 교육

표 2. 광주지역 산업별 영향력계수와 감응도 계수, 고용계수, 소득계수

산업구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고용계수	고용유발계수	소득계수	소득유발계수
농림수산물	0.93895	0.91246	0.00001	0.000009	0.00105	0.001083
광산물	0.95661	0.72733	0.00001	0.000008	0.00000	0.000000
음식료품	1.03898	1.21301	0.00019	0.000213	0.00000	0.000005
섬유 및 가죽제품	1.02773	0.81010	0.00032	0.000348	0.00001	0.000009
목재 및 종이제품	0.92726	0.82660	0.00005	0.000049	0.00000	0.000003
인쇄·출판 및 복제	1.01556	0.85113	0.00011	0.000120	0.00000	0.000004
석유 및 석탄제품	0.77346	0.70470	0.00000	0.000000	0.00000	0.000000
화학제품	1.06948	1.50958	0.00034	0.000422	0.00001	0.000007
비금속광물제품	0.97156	0.80452	0.00005	0.000051	0.00000	0.000002
제1차금속	0.89007	0.89384	0.00004	0.000045	0.00000	0.000001
금속제품	0.97289	0.85604	0.00012	0.000131	0.00001	0.000010
일반기계	1.05375	1.06432	0.00054	0.000620	0.00001	0.000016
전기, 전자기기	0.95690	0.91249	0.00035	0.000379	0.00000	0.000005
정밀기기	1.08302	0.71430	0.00019	0.000189	0.00000	0.000001
수송장비	1.21938	1.09672	0.00072	0.000950	0.00001	0.000008
가구 및 기타제조업	1.01427	0.74395	0.00006	0.000057	0.00000	0.000005
전력 가스 및 수도	0.90048	0.90169	0.00006	0.000059	0.00397	0.004202
건설	1.03351	0.92725	0.00142	0.001431	0.04764	0.048001
도·소매	0.99196	1.19658	0.00450	0.004536	0.02098	0.021163
음식점 및 숙박	1.03598	0.95634	0.00188	0.001887	0.00632	0.006347
운수 및 보관	0.93445	1.12837	0.00128	0.001376	0.01355	0.014557
통신 및 방송	0.85002	0.95407	0.00005	0.000053	0.00646	0.006537
금융 및 보험	0.96993	1.43520	0.00127	0.001382	0.02075	0.02261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0527	2.05128	0.00100	0.001126	0.00874	0.009828
공공행정 및 국방	1.02696	0.70427	0.00080	0.000796	0.01586	0.015855
교육 및 보건	0.90783	0.98136	0.00226	0.002297	0.04272	0.043518
사회 및 기타서비스	1.07694	0.77948	0.00097	0.000994	0.01988	0.020415
기타	1.35681	1.34259	0.00039	0.000393	0.02803	0.028535

및 보건과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의 요소소득이 통계청 요소소득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항목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 정부서비스 생산자 및 민간 비영리단체의 소득을 합하여 이를 총사업체조사 보고서의 서비스 항목의 산업분류에 따른 종사자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 결과 광주지역의 고용유발계수는 전 업종에서 낮아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이 취약하며, 이러한 취약한 구조에서도 도·소매업을 비롯한 교육 및 보건, 음식점 및 숙박, 건설업 등이 그나마 광주지역의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소득유발계수는 건설, 교육 및 보건, 금융 및 보험, 도·소매 등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광주지역의 고용과 소득창출에 제조업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 3. IMF 금융위기 이후 광주경제 변화

#### 1) 지역내 총생산액으로 본 광주경제 변화

앞 절에서 광주지역은 서비스산업과 수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고, 전후방연관 효과를 비롯한 고용 및 소득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러한 산업이 IMF 금융위기 과정에서 지역총생산액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광주경제는 상대적으로 더욱 큰 위기의 변화를 겪었다는 말이 된다. 광주지역내 총생산액의 산업별 증가율 변화를 보면, 도시근교 채소가 호조를 보인 농림어업과 이동통신부문이 증가한 통신업 그리고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에서 증가 한 반면 광공업과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부진하였다. 특히 운수창고업이 40.4% 감소하고, 음식점숙박업은 22.8%가 감소하였다. 이들 산업의 감소는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

타났다.

광주경제가 서비스업에 치중되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서비스 부문에서 감소는 지역내 총생산액의 증가율을 크게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98년도 광주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액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인 97년 2.3% 성장에 비해 -12.9% 성장을 보여 전국 시·도에서 인천(-13.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지역 경제가 IMF 금융위기에 의해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든 지역에서 지역내 총생산액의 증가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생산의 지역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충북이 유일하게 증가하여 IMF 금융위기 기간에 오히려 경제력이 수도권과 인접 지역에 집중된 현상을 보였다.

표 3. 산업별 총생산액 증가율 변화

구 분	(단위:%)			
	광 주		전 남	
	1997	1998	1997	1998
산업	1.7	-12.3	8.3	-4.8
농림어업	33.6	27.1	-1.4	-3.0
광업	-41.7	-26.8	-12.9	2.4
제조업	-5.5	-16.8	16.2	-1.8
전기,가스,수도	16.6	1.9	18.0	-4.5
건설업	2.5	19.3	7.9	-1.9
도·소매업	0.1	-9.6	4.1	-16.1
음식숙박업	12.3	-22.8	1.7	-12.9
운수창고업	0.2	-40.4	5.4	-16.4
통신업	13.2	15.6	8.1	5.0
금융보험업	-4.5	-0.3	7.8	-7.5
부동산임대사업	8.9	-6.0	6.9	-9.7
사회개인서비스	9.3	-8.6	9.7	-5.4
정부서비스생산자	4.1	-4.5	2.8	-6.2
공공행정 및 국방	4.3	-4.4	9.0	-6.6
사회서비스	4.0	-4.6	-2.4	-5.9
민간비영리서비스	6.3	-8.9	3.0	-5.1
전산업	3.2	-12.9	8.1	-5.2

자료: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액, 1997, 1998.

표 4. 지역내총생산 구성비(경상가격)변화

(단위:%)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서울	25.3	24.6	23.6	23.4	22.7	22.2
부산	7.0	6.9	6.7	6.7	6.4	6.4
대구	3.8	3.8	3.9	3.8	3.7	3.5
인천	5.0	4.9	5.0	4.9	4.9	4.7
광주	2.3	2.4	2.4	2.3	2.3	2.2
대전	2.4	2.3	2.2	2.2	2.3	2.3
울산	-	-	-	-	-	4.9
경기	16.6	1.6	17.0	17.2	18.2	19.5
강원	2.8	2.7	2.7	2.7	2.9	2.7
충북	3.2	3.3	3.3	3.4	3.5	3.6
충남	3.9	4.1	4.1	4.5	4.5	4.4
전북	3.6	3.6	3.6	3.7	3.6	3.5
전남	5.3	5.2	5.3	5.3	5.4	5.3
경북	6.6	6.8	6.7	6.6	6.7	6.4
경남	11.3	11.9	12.2	12.0	12.0	7.4
(울산포함)	(11.3)	(11.9)	(12.2)	(12.0)	(12.0)	(12.3)
제주	1.0	1.0	1.0	1.0	1.0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104.1	104.0	104.3	104.4	104.6	104.1

주 : 전국부문은 국방부문 및 수입세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액, 각년도.

2) 제조업의 업종별 입지특화도 변화

광주지역 제조업의 입지계수의 변화추세를 통해서 본 광주지역의 특화산업은 전통적으로 음식료품 이외에 아시아자동차, 연초제조창, 금호타이어, 그리고 대우전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입지에 의해 이루어졌다(임형섭, 1998). 광주지역의 전체 광공업생산 가운데 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기타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 음식료품, 그리고 전기기계 및 변환장치 제조업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의 입지와 관련되었다. 그런데 1970년부터 광주권의 특화산업이 되어왔던 음식료품의 비중은 1990년대 말에 10%에 못 미치는 상태로 유지되었고, 목재 및

나무제품, 섬유제품, 출판·인쇄업 등은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5%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지역에서 비중이 큰 산업의 위치가 크게 변하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의 입지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음식료품이나 나무 및 가구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특정 산업에 대기업이 존재하느냐가 입지상계수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부문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에 인쇄출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에서 입지상계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자동차의 생산가동의 정지와 인쇄물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업종, 전기·전자업종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들 업종이 상대적으로 IMF 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아 집중 지수를 높여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가동률 변화

IMF 이후 자금난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이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은 98년 4월이후 60%대의 가동률을 보여 IMF의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99년 4월까지 중소제조업 존립자체의 생존위협을 겪었다. 다행히 경제가 서서히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99년 5월이후 70%이상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99년 7월 이후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00년 1월정상가동률은 77.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9.0%가 증가하였다.

이 지역 중소제조업의 업종이 다양하질 못하고 전통산업이 대부분이며,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탄탄한 경영기반을 가진 중·대기업이 없어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조업단축의 큰 원인이 되었다. 2000년 1월 현재 100%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종은 공

표 5. 광주지역 생산액 기준 입지상계수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광업	0.89	0.71	0.60	0.40	0.26	0.26	0.17	0.19
석탄광업	1.50	1.33	1.39	1.09	0.00	0.00	0.00	0.00
금속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광업	0.00	0.06	0.00	0.05	0.11	0.17	0.09	0.08
제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음식료품	1.18	1.16	1.22	1.22	1.03	0.93	0.97	1.22
섬유제품	0.78	0.64	0.73	0.63	0.72	0.69	0.68	0.85
의복,모피	0.18	0.20	0.15	0.18	0.17	0.15	0.15	0.17
가죽,가방,신발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목재, 나무제품	0.62	0.74	0.83	0.73	0.56	0.72	0.69	0.93
펄프종이제품	0.19	0.11	0.10	0.14	0.13	0.21	0.30	0.36
출판인쇄기록매체	0.72	0.77	0.68	0.74	0.78	1.00	1.33	0.68
코크스석유정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물화학제품	0.02	0.03	0.02	0.03	0.03	0.05	0.05	0.02
고무,플라스틱	3.58	3.70	3.60	2.74	2.81	3.04	2.49	3.72
비금속 광물	0.36	0.35	0.31	0.28	0.37	0.32	0.58	0.40
제1차금속	0.04	0.09	0.26	0.35	0.23	0.32	0.23	0.16
조립금속업	0.33	0.57	0.55	0.46	0.64	0.67	0.85	0.66
기타기계 장비	1.85	1.96	2.45	2.27	2.28	2.25	3.86	4.52
사무계산용 기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전기기계 변화장치	1.00	1.25	1.10	1.18	1.47	1.35	1.61	1.70
영상음향통신장비	0.47	0.37	0.41	0.42	0.35	0.33	0.43	0.67
의료,정밀,광학기기	0.07	0.08	0.06	0.08	0.17	0.16	0.14	0.25
자동차트레일러	3.53	3.43	2.69	3.23	3.27	3.04	1.79	1.62
기타운송장비	0.00	0.00	0.00	0.01	0.02	0.02	0.02	0.01
가구,기타	0.35	0.45	0.49	0.59	0.35	0.34	0.36	0.32
재생재료가공처리	0.00	0.00	1.51	0.75	3.39	2.99	3.28	3.04

자료: 통계청 DB KOSIS의 시도별/산업별 생산액에서 계산.

예, 니트, 비교적 서민식품이라 할 수 있는 연식품, 기  
아자동차의 정상화로 인한 자동차부품업종이며, 나머  
지 업종은 자금난과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단축이 지속  
되고 있는데, 기계업종은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이 인  
쇄업종은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단축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전남의 부도율은 IMF이후 꾸준  
히 증가하여 98년 상반기에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2%에 육박하였으나 1999년이후에는 0.5%대로 낮아  
져 전국 평균과 같은 안정된 상태에 있다. 단 전국의  
경우 99년후반부에 1.6%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대  
우사태로 인한 결과이다. 이처럼 IMF이후 98년 전반  
기에 부도율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은 그만큼 광  
주에 입지한 기업이 영세하고 경제환경에 민감했으며,  
기아자동차 부도로 인한 타격이 심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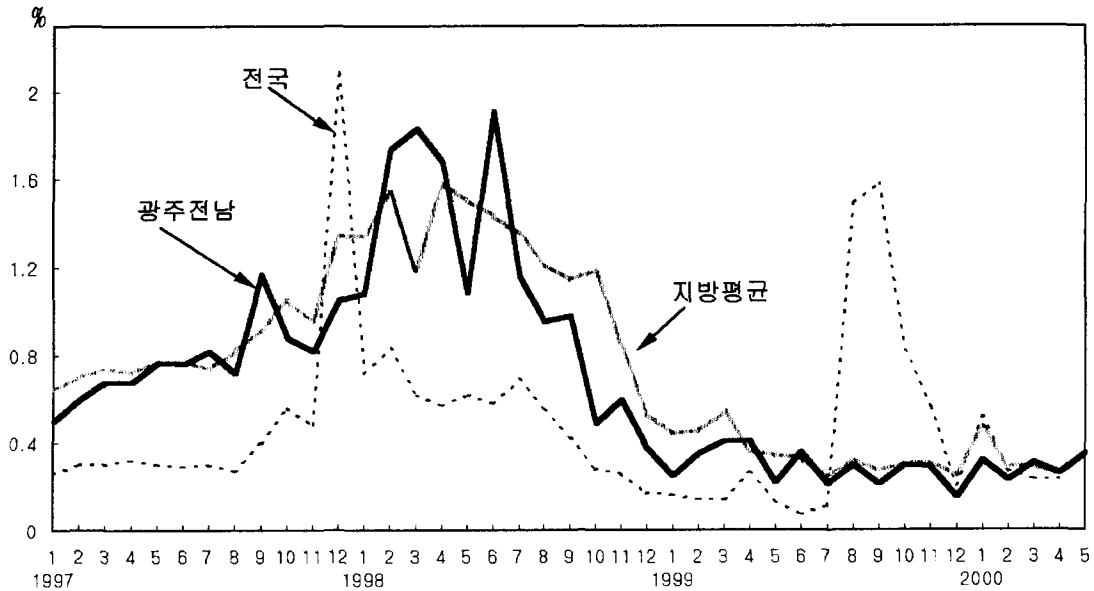


그림 1.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 변화

4) 최근 광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98년도에 크게 악화되었던 광주·전남지역의 고용사정은 99년 이후 빠른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광주지역의 취업자는 98년 전년대비 9.9% 감소하였다가 지난해 1.2% 증가한 후 2000년 1/4분기에는 7.3%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의 취업자는 98년 5.3% 감소후 지난해에는 1.4%, 2000년 1/4분기에는 6.4%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실업률은 97년 1.4%(전남), 3.2%(광주)에서 98년 4.3%, 7.9%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 1/4분기에는 3.4%, 6.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전국의 실업률은 97년 2.6%에서 98년 6.8%까

지 상승하였다가 2000년 1/4분기에는 5.1%로 하락하였다.

광주·전남지역은 외환위기 이후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시간제(part-time) 근로자(OECD에서는 주당 35시간 미만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본 자료에서는 이를 시간제근로자로 간주)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진 반면 고용구조의 안정성은 저하되고 있다.

1997년 광주지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5.5%로서 전국의 7.3%에 비해 훨씬 낮았으나 99년 10.0%, 2000년 1/4분기 10.4%로서 전국의 10.6% 및 11.4% 수준에 거의 육박하였다. 전남지역은 97년



표 6. 취업자와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년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1/4
광 주	527 (3.1)	548 (4.0)	494 (-9.9)	500 (1.2)	512 (7.3)
	2.8	3.2	7.9	7.7	6.2
전 남	1,021 (1.0)	1,029 (0.8)	1,019 (-1.0)	1,001 (-1.8)	988 (3.0)
	1.0	1.4	4.3	4.1	3.4
전 국	20,817 (1.9)	21,106 (1.4)	19,994 (-5.3)	20,281 (1.4)	20,313 (6.4)
	2.0	2.6	6.8	6.3	5.1

주 :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KOSIS.

7.8%로서 전국수치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99년 15.2%로서 전국의 약 1.5배 수준으로 높아진 데 이어 2000년 1/4분기에는 22.5%로서 농한기 등 계절적 요인(99년 취업자의 39%에 달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계절적 요인으로 농한기에 들어가거나 출어시간(出漁時間) 단축이 겹쳐 전국의 2배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광주지역의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97년 50.6%로서 전국의 45.9%보다 훨씬 높아 경제위기 이전부터 임시직이나 일용직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이후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전국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비중이 2000년 1/4분기에 52.4%로 빠른 상승을 보였으며, 광주지역은 53.9%로 상승하여 전국과의 격차가 4.7%에서 1.5%로 좁혀졌다. 이것은 광주지역의 산업이 단순 조립산업이나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상대적으로 저기술의 단순노동이 노동시장을 구성해 왔음을 보여 준다.

한편 광주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58.4%로서 전국의 62.2%보다 약 4%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전국보다 빠르게 하락하여 2000년 1/4분기 중에는

54.2%에 그침으로써 전국의 59.5%와의 격차가 5%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전남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65.1%로서 전국보다 약 3%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전국보다는 하락 폭이 적어 2000년 1/4분기 중에는 63.8%를 기록함으로써 전국수준을 4% 이상 상회하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산업별 취업자중 건설업 비중은 97년 13.7%에서 2000년 1/4분기에는 9.8%로 크게 낮아져 동기간 중 전국의 9.5%에서 6.9%로 낮아지는 것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비중은 전국의 21.2%에서 20.7%로 줄어 든 것에 비해 광주지역은 11.9%에서 12.5%로 증가한 것이 대조적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주지역의 산업이 서비스업에 집중되었고, 이들 서비스업이 IMF 금융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이 높아진 결과이다.

### 5. 지역의 대응양식과 경제공간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 금융위기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하여 소수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광주경제는 대기업의 광주공장 존립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소비중심의 영세한 서비스업에 광주경제가 특화되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액 성장을 크게 감소시켰다. 반면 첨단산업에 가까운 일반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공간변화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했으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의 대응양식이 기존 대기업의 보호와 새로운 첨단산업을 창출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몇 가지 공간경제의 변화징후들이 나타났다.

표 7. 주당 취업시간별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지역	취업시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4
광주	36시간 미만	2.7	3.8	5.5	9.9	10.0	10.4
	36시간 이상	96.7	95.6	94.0	88.9	89.0	88.2
	일시휴직	0.6	0.6	0.5	1.2	1.0	1.4
	평균취업시간(시간)	56.4	56.4	55.1	52.0	51.8	51.4
전남	36시간 미만	5.7	6.3	7.8	9.3	15.2	22.5
	36시간 이상	94.1	93.3	91.9	90.4	84.1	76.0
	일시휴직	0.2	0.4	0.3	0.3	0.7	1.5
	평균취업시간(시간)	51.0	51.7	51.0	50.3	48.1	44.3
전국	36시간 미만	6.3	6.2	7.3	9.3	10.6	11.4
	36시간 이상	93.0	93.1	91.9	89.5	88.3	87.3
	일시휴직	0.7	0.7	0.8	1.2	1.1	1.3
	평균취업시간(시간)	52.4	52.2	51.3	50.1	50.4	49.8

자료: 통계청 KOSIS

표 8.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추이

(단위: 천명)

지역	종사자지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4
광주	근로자	330(100.0)	336(100.0)	350(100.0)	324(100.0)	327(100.0)	328(100.0)
	상용	166(50.3)	169(50.3)	173(49.4)	165(50.9)	153(46.9)	151(46.1)
	임시	122(37.0)	129(38.4)	136(38.9)	120(37.0)	120(36.7)	123(37.5)
	일용	42(12.7)	39(11.7)	41(11.7)	39(12.6)	53(16.2)	54(16.5)
전남	근로자	390(100.0)	400(100.0)	413(100.0)	397(100.0)	407(100.0)	409(100.0)
	상용	197(50.5)	202(50.5)	204(49.4)	202(50.9)	184(45.2)	178(43.5)
	임시	117(30.0)	120(30.0)	135(32.7)	115(29.0)	133(32.7)	150(36.7)
	일용	76(19.5)	78(19.5)	74(17.9)	81(20.4)	90(22.1)	81(19.8)
전국	근로자	12,784(100.0)	13,065(100.0)	13,226(100.0)	12,191(100.0)	12,522(100.0)	12,871(100.0)
	상용	7,429(58.1)	7,401(56.6)	7,151(54.1)	6,457(53.0)	6,050(48.3)	6,124(47.6)
	임시	3,545(27.7)	3,860(29.5)	4,182(31.6)	3,998(32.8)	4,183(33.4)	4,475(34.8)
	일용	1,809(14.2)	1,804(13.8)	1,892(14.3)	1,735(14.2)	2,289(18.3)	2,272(17.6)

자료: 통계청 KOSIS

1) 산업집적 공간의 위기와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운동 전개

IMF 금융위기는 수송장비산업에 특화된 광주경제의 상황에서 기아자동차의 위기는 아시아자동차공장과 1차 협력업체인 80개 중소기업 및 수많은 2, 3차 협력

업체의 위기로 이어져 광주경제에 막대한 마이너스 파급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광주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는 아시아자동차와 연관된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소기업의 도산은 산업단지의 경제적 위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보호적 운동이 활발

표 9. 산업별 취업자 비중

(단위 : %)

지 역	산 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4
광 주	농 립 어 업	5.7	5.1	5.1	6.5	6.0	5.7
	제 조 업	14.7	13.3	11.9	13.4	12.6	12.5
	건 설 업	12.9	13.3	13.7	10.5	9.4	9.8
	도 소 매 업	30.5	32.3	32.1	30.6	31.6	32.8
	공공 · 서비스	25.4	25.4	26.3	27.5	29.2	28.5
전 국	농 립 어 업	12.4	11.7	11.3	12.4	11.6	9.3
	제 조 업	23.5	22.5	21.2	19.5	19.8	20.7
	건 설 업	9.3	9.5	9.5	7.9	7.3	6.9
	도 소 매 업	26.3	27.1	27.5	27.9	28.2	29.1
	공공 · 서비스	19.2	19.8	20.9	22.3	23.3	23.9

자료: 통계청 KOSIS

하게 전개되었다. 이것은 기아자동차가 합병이 되든 때까지 되든간에 아시아자동차공장을 계속 입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대우전자의 구조조정과 한남투자신탁의 부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이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지역경제살리기 시민운동은 시장기능에 의한 조정보다는 정치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광주경제가 소수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기 있어 대기업의 존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다. 이러한 운동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IMF 기간에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위기는 금융업 구조조정과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의 생산액 감소로 인해 이들 산업이 집적된 도심지역경제의 쇠퇴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심지역산업의 쇠퇴는 대도시화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나 IMF 금융위기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사무실 임대수요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야기하여 자본회전이 경직되고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도심지역은 경제적으로 더욱 침체된 공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광주의 도심지역경제가 심각한 현상은 이 지역이 농촌지역을 배후로 한 소비의 중심지로 성장한 반면 산업기반은 낙후되어 생산과 관련된 업무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심지역 시민들의 도심화 성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2) 전략산업 육성과 광산업 집적공간의 형성

IMF 금융위기 이후 지역의 산업정책은 전략산업 육성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전통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첨단산업을 육성코자 함이었다. 특히 기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욱 강력하였다. 광주의 경우 전략산업으로 광산업을 추진하였다. 광산업은 광주 지역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이 산업을 택한 이유는 국내에서 광산업이 특화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역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육성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의 이미지인 빛고을과 관련되어 광산업에 대한 시민의 친근성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

략적 접근이었다.

이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특화된 산업도시에 더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기반한 도시는 더욱 심각하였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이 집적된 대구시와 부산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중앙정부는 이들 산업을 기술고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육성지원을 결정하였다. 대구와 부산에 섬유와 신발산업의 육성지원 프로젝트가 결정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의 지역정서를 무시할 수 없었던 배경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광산업의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대한 지원사업이 계획됨(산업연구원, 2000)에 따라 광원과 광통신부품을 중심으로 50여개의 중소기업이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내 산업단지에 집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집적을 형성한 원인은 지역연고성을 지닌 기업이 광주과기원을 비롯한 지역내 대학으로부터 창업기술을 획득하여 기업을 설립하였고, 이들 기업들은 상호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광통신부품의 업종은 최첨단연구개발과 반자동화에 의한 숙련노동인력 중심의 소량생산과정으로서 대기업의 수직적 통합이 상대적으로 분리한 분야이다. 때문에 광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광주과기원을 비롯한 지역내 대학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우수성과 저렴한 숙련노동력을 활용하여 집적을 이룬 것이다.

특히 정부의 광산업 육성과 집적화 정책의 추진과 한국광산업진흥회설 등 광산업집적화단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갖고 타지역으로부터 이전과 창업이 집적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기업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업은 첨단기술개발이 중요하므로 대학과 기업간의 유기적 협력과 정보의 상호 공유가 필요하며 때문에 집적화의 경향을 강하게 선호하

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급인력의 부족과 첨단산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기능이 취약해 수도권에 대한 입지 미련이 남아 있어 향후 정책적 의지와 광산업에 필요한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여하에 따라 집적공간의 활로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 3) 기술개발 및 지식기반 강화와 미시산업공간 형성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그 동안 저렴한 노동을 원천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경쟁력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케 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이행에서 찾으려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변화는 벤처기업의 폭발적 증가로 나타나 산업구조가 점차 첨단정보산업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테헤란로처럼 벤처기업이 집적된 지역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광주지역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센터 건립이나 엔젤금융 설립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 서처럼 벤처기업 집적지구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달리 광주지역에서는 집적지구의 형성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전국 벤처기업의 7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등록법인의 72%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벤처기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의 벤처기업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1999년말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 확인업체수는 139개로 전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벤처기업중 광역시가 차지하고 있는 평균비중이 8%정도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코스닥 등록업체는 5개 기업에 불과하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및 금속제품업이 20.1%, 전기기기 및 장치제조업이 15.8%, 기계

제조업이 14.4%,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이 13.7%, 석유화학제품업이 10.8%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업종보다 일반 제조업종의 벤처기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일반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광주지역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경우 기존의 공간분업에 의한 산업화와 산업구조(김재철, 1999)는 경제위기 이후 지방산업의 도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산업구조과정에서 오히려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첨단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Malmberg, 1996) 구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정책은 지식산업사회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강화에 방향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연구개발지원이나 산학협동지원, 그리고 지원 조직체를 설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경제공간의 변화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데 반해 새로운 경제공간 즉 캠퍼스경제나 빌딩경제라 할 수 있는 미시경제공간이 형성되었다. 대학의 실험실을 통해 캠퍼스에 창업기업이 발생하고, 창업보육센터나 벤처빌딩에 예비기업이 입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체적 정책 대안의 부족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의 문제에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 6. 맺는말 : 비판적 대안

IMF 금융위기는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영세한 규모의 서비스산업에 비중이 높은 광주경제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쳤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수송장비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이 금융위기 기간에 큰 감소를 나타내어 지역생산액 성장률이나 중소기업 가동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을 보여 지역경제가 어

려웠다. 또한 실업률도 전국평균을 넘었으며, 노동시장도 일시적 노동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잠재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첫째 산업단지 및 도심지역의 경제적 쇠락을 야기하였고,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역기업 살리기 및 도심활성화의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 광산업 집적공간이 형성되는 변화를 보였다. 셋째, 벤처기업 창업에 열기가 고조되면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낮지만 이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빌딩이 건설되고 창업기업이 입주하면서 미시 산업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은 수도권권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사회, 경제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본다. 지역에서는 수많은 계획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정의 주체는 이윤지향의 기업이기 때문에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정책에도 기업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경제적 제 요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디지털경제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이 지역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이나 수많은 벤처기업들은 서울이나 서울 주변 지역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지역까지는 입지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수도권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 자녀교육도 수도권에서 시키고자하는 의욕이 매우 강하다. 때문에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려해도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직장으로 전직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실천해 옮기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동안 광주·전남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대규모의 공장용지가 필요하거나 주변부성의 기술을 지닌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서 이 지역에 입지가 유리한 기업이었다. 이제 이런 기업으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없으며, 더군다나 통일을 앞에 두고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과거와 같은 공장용지 공급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기업지원도 지방정부에게는 자율성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광주지역의 산업정책은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먼저 21세기를 주도하는 성장산업 즉 첨단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인력이 이 지역을 선호하고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도권보다 더 나은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을 갖추고 수요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주거, 문화, 여가시설 등 생활환경의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를 가꾸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도시경관, 쾌적한 환경, 질 좋은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차별화 될수 있는 수준에 올라야 사람이 선호하고 기업이 선호할 것이다.

셋째, 창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관습 또는 제도 등이 관을 비롯한 모든 조직사회에서부터 탈피하는 사고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정착되도록 사회운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야 21세기 지식산업에 맞는 효율성과 창조성이 보장되고 지역경쟁력이 제고된다.

넷째, 구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동 및 협력정신

이 실천되어야 한다. 최근 R&D부문에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교육부 등을 비롯한 지방정부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연계성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대학과 대학, 기업과 대학 등 교류와 협력관계를 이루는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원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날 한국경제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농업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최근에 R&D 지원자금 등 지원과 투자가 있으면 반드시 사후관리와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력들이 충원되고 전문화되어야 건전하고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실천적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박경·박진도·강용찬, 2000; Morgan, 1997) 기반조성에 정책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박경, 박진도, 강용찬, 2000, "지역혁신 능력과 지역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론의 의의, 과제 그리고 정책적 함의", 공간과 사회 통권13호, 한국공간환경학회, pp.12-45.
- 김상호, 1995, "광주전남 중소기업 제조업의 생산구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pp.1-15.
- 김재철, 1999, "제조업 집중과 분산의 공간적 변화와 주변지역의 공업화 요인", 국토계획, 제34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137-149.
- 김재철, 1999, "우리나라 산업입지 변화요인분석: 구조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권 2호, 한국경제지리학회, pp.27-45.
- 김호연, 1999, "환경규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pp.1-13
- 이춘근, 1994, 지역산업의 연관모형과 추정방법과 대구지역에의 적용, 연구보고서 93-1, 대구 경북발전연구원.
- 임형섭, 1998, 지역 특화산업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 산업자원부, 2000, 광주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연구.
- 한국은행 광주지점, 2000, 21세기 광주전남지역경제의 과제와 발전전략.
- Malmberg, A., 1996, "Industrial geography: agglomeration and local milieu",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 3, pp.392-403.
- Malmberg, A., 1996, "Industrial geography: location and learn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 4, pp.573-582.
- Morgan, K., 1997, "The learning region: institution,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Vol.31, No.5, pp.491-503.

## Abstract

### The Financial Crisis of Korean Economy and the Changing Economic Space of Gwangju City

Jaechul Kim\*

Recently as globalization of financial capital is progressed, possibility of crisis and unreliability of world economy is more growing. Korean economy required radical restructuring be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economic changes occurred in that process.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economic changes of Gwangju city is produced by the financial crisis of Korean economy.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are service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in Gwangju city. These industries began to decrease after financial crisis but machinery equipment, electrical machinery & electronics and rubber goods & plastic industry is growing relatively. Because of the decrease of service, the economy of inner city which service industry relatively agglomerated in is reducing.

And agglomeration space for the optical photonics industry was built up by the upbringing policy of government on high-technology industr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micro industrial space such as venture building and establishment nursery center was built up.

But high-technology industries have many geographical limits to embed in Gwangju city, so there needs to construct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knowledge based economies

**Key words :** globalization of financial capital, world economy, financial crisis, agglomeration space, micro industrial spac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 Senior Research Fellow, Kwangju · Chonnam Development Institute